

# 문래창작촌 · 광주 대인예술시장 · 부산 또따또가의 창조네트워크 비교 연구

김 홍 주\*

## A Comparative Study on Creation Network of Mullae in Seoul, Daein Art Market in Gwangju, Totatoga in Busan

Hong Joo Kim\*

**요약** : 최근 문화를 이용한 도시재생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강화 및 이미지개선, 장소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집적공간 중 공공지원의 정도가 다른 세지역(문래창작촌, 부산또따또가, 광주대인예술시장)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가들의 창작과정에서 보여주는 창조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문래창작촌, 공공지원에 의해 조성된 또따또가, 중간성적인 대인예술시장의 공간적 특징과 창작과정의 창조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문화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사례 창작촌의 형성과정 고찰 및 각 지역의 창작과정의 특징, 예술가들의 창조네트워크 특성, 활성화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이루어졌다.

**주제어** : 문래창작촌, 광주대인예술시장, 부산또따또가, 창조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분석

**ABSTRACT** : Recently, cities have increasingly invested resources in culture and art policy, from physical districts with public investment in a catalytic development, to informal program that recognize existing clusters of artist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rtist's work process as a catalyst for urban revitalization. In this light, we speculate how artists create their works through actor networks in Mullae in Soeoul, Kwangju Daein Art Market, Totatoga in Busan. For this study, we reviewed previous papers and carried out field survey,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look into the evolution of three districts in Seoul, Kwangju, Busan. we used social network analysis to look at the way of collaboration and flow of idea during creative process. We find that networks of artist is represented as three characters; variety of actors, centralization, spatial proximity. With unique assets of each districts, we can classify three district with private leading, public leading, hybrid. For better place, formal and informal planning tools are needed to keep artist creating networks.

**Key Words** : Mullae, Daein art market, Totatoga, creation networks, social network analysi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도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이 새로운 화두가 되었고, 지식 기반사회가 심화되면서 문화, 창조성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정책은 통섭화되고 있다.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의 통합적 접근은 문화예술산업, 창조산업, 축제를 포함한 관광산업, 문화예술기반시설 구축, 문화지구, 문화예술인 지원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 중 공간에 초점을 둔 정책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거리, 지구, 마을,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설단위 정책에서 면적인 개념을 적용하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와 지역정체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지금까지의 물리적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창조적 도시재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생태계를 파악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물리적 접근에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생태계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곳을 사례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조과정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집적과정이 상반된 세 지역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집적공간의 차이점, 창

조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통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문화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3장은 연구대상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고찰한다. 4장은 사례지역인 문래창작촌, 대인예술시장, 또따또가의 창조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각 창작촌의 특성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창작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 연구대상지 선정

문화예술인들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심주체인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활동, 창조성 연구가 중요하다. 김연진(2010), 박세훈 외(2011)연구에서 국내 문화예술인 집적지의 분포를 집계한 것을 보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조성한 곳이 대부분이고, 박세훈 외(2011)는 이를 문화클러스터로 규정하고 유형을 자생형, 민간주도형, 정책지원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공간형성의 주체(행위자)측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끈 경우(정부주도형), 개인, 단체,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형성해온 경우(민간주도형), 복합적 성격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곳(복합형)에 공공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로 크게 세 개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부주도형 사례는 부산시가 쇠퇴하는 원도심(중구 중앙동일대)에 임대료 지원을 조건으로 예술가를 입주시켜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또따또가”를 선정하였다. 또따또가는 관광객의

증가,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자생적으로 형성된 민간주도형은 홍대나 신촌의 임대료 상승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2000년 이후 자생적으로 모여든 곳으로 현재 작업실뿐 아니라 미술관, 커뮤니티 시설, 건축, 공방 등 다양한 업종이 집적된 문래창작촌(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을 선정하였다. 문래창작촌은 서울시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책적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복합형사례는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두 지역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대인시장의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한 사례로, 기존에 예술가들에 의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역에 광주광역시와 공공지원을 한 “대인예술시장(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일대)”를 선정하였다.

## II.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관련 연구 고찰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의 통섭적 접근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도시공간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의 개념(Zukin, 1995; 박은실, 2005; Bianchini and Parkinson, 1993; Bennett, 1998) 및 효과 관련 연구, 특정공간의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예술생태계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화중심의 도시재생 평가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 홍보효과와 관광, 고용성장을 촉진하여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Palmer, 2004; Garcia, 2005). 반면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통합과 문화적 자산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으로 자부심 회복이나 교육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Shaw, 2003; Matarasso, 1997; Garcia, 2005; Matarasso, 1996)는 주장도 있다. Newman and McLean(2002)은 예술프로젝트의 지역사회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학적, 계량적 방법론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 효과는 먼저 개인적 변화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고립감 해소, 행복감 증가를 언급하였다(Matarasso, 1996; Williams, 1996). 사회적 변화로는 지역성에 대한 자부심 증대, 타집단과의 연대성 향상을 들었고(Matarasso, 1996), 경제적 변화로는 직업창출, 지역이미지 향상, 예술작품 판매 증대, 예술프로그램 투자확대를 들었다(Matarasso, 1996; Williams, 1996).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수반되는데 경제적으로 문화전략이 도시의 이미지를 환기시켜 경제적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일으켜 부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다(Loftman and Nevin, 1998; Booth and Boyle, 1993). Miles(2004)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심각성과 지역문화보다는 소비위주의 문화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정체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통합보다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Booth and Boyle, 1993). Evance(2005)는 미국소호에서 기존의 지역민들과 새로운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주현상이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국내연구에서 문화중심의 도시재생정책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미술문화공간이 도시재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변항기·조종수(2006), 석혜준·이만형(2006), 강미나(2004), 오동훈(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도심의 문화공간이 지

역의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도시재생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공공간의 확대’와 ‘소외계층의 문화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명진, 2010).

문화예술인들의 창조과정에 대한 연구는 창작 과정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의 창조활동의 연구는 공간전체에 대한 창조성을 볼 수 있는 것으로 Becker(1982)는 예술가들의 창조성은 고립된 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술가들의 창조네트워크 연구로는 김홍주(2011), 박세훈 외(2011), 김홍주·박세훈(2012), Seifert et al.(2005), Stern and Seifert(2007)가 있다. Seifert et al.(2005)은 펜실베이니아의 예술프로젝트(SIAP : Social Impact of the Arts Project)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예술가들의 창작과정에서 문화, 경제, 사회적 외부효과가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필라델피아의 도심, 교외지역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함에 따라 예술가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홍주(2011)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서울시 문래창작촌의 예술가들의 창조네트워크구조를 분석하였는데, 문래창작촌의 창조네트워크는 자생적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창작활동을 하는 곳인 만큼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축제, 소모임, 행사, 전시회, 해외 교류, 커뮤니티를 형성하였고, 개별 예술가들은 개인공간의 공유화를 통해 공간적 복합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또한 창조네트워크는 창작촌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교류가 중심이 된 지리적 근접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도 외부예술가들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자생적 창작촌의 생태계를 보여주었다.

창조도시를 위한 문화예술인의 집적공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나, 국내 최초 예술가들의 자생적 집적공간인 문래창작촌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문래창작촌 관련연구는 박승애 외(2009), 이순성(2010), 김인선 외(2010), 김윤환·권범철(2008, 2010), 김연진(2010) 등이 있다. 박승애 외(2009)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문래창작촌을 평가하였고 김윤환·권범철(2008, 2010)은 문래창작촌의 실태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문래창작촌의 문화·정치적 이슈를 공론화하였다. 그리고 김연진(2010)은 문래동의 장소성과 예술촌으로서의 도시재생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III. 문래창작촌, 광주 대인예술시장, 부산 또따또가의 장소적 특성

본 장은 문래창작촌, 대인예술시장, 또따또가의 성장과정 및 장소적 특성을 고찰하였는데, 성장과정은 기존문헌과 예술가들과의 인터뷰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장소적 특성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현장조사, 인터뷰,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문래창작촌, 대인예술시장, 또따또가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주도형인 문래창작촌은 2000년 이후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이주하여 형성된 곳으로 현재는 약 70여개의 창작실이 집적되어 있다. 문래창작촌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 문래역에서 반경 100미터 내외의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도보권에 타임스퀘어, 영등포역이 있고 상권과 주거지역의 중간

영역에 있어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자 영등포구와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최근 문래창작촌의 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할 문래예술공장이 2010년 10월에 건립되었다. 문래창작촌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에 대한 의지와 서울시의 공공지원 역할을 하게된 문래예술공장, 영등포구의 정책의지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있으나 재개발지역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주도형인 또따또가는 원도심 지역의 재생을 위해 부산시가 2009년 시작한 사업으로 20여개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3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을 입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또따또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의 지하철 중앙역 주변의 반경 200미터 정도의 공간적 범위를 가진 지역으로, KTX부산역, 부산항 여객터미널, 국제시장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 예술가들을 입주시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축제, 국제교류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복합형인 대인예술시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대인시장이 고속버스터미널 및 도청이전으로 쇠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 예술가들이 빈점포에 하나둘씩 입주하면서 자생적으로 창작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2008년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가 입주작가 프로그램(일명 '복덕방 프로젝트', 2010년 '느티나무시장 프로젝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술가들이 점차 집적되어 현재 약 50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은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대인시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인예술시장은 전남도청부지의 아시아문화의 전당과

화랑거리, 충장로, 금남로를 잇는 상업지역과 도보권내(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창작촌의 장소적 특성은 창작촌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창작촌내부의 공간특성, 창작촌 전체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창작촌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및 커뮤니티분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세 지역의 형성과정을 보면 2000년 이후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저렴한 임대료와 도심이라는 이점으로 이주한 곳으로 소규모지역에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세 지역 창작촌의 예술인들은 공통적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창작촌을 중심으로 해당 광역권(특별시, 광역시, 도)의 예술가들이 모여 있었다. 예술가들의 나이와 분야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또따또가는 부산시가 조성 당시 의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교류활동은 차이를 보이는데, 문래창작촌은 다양하고 개별적인 소모임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또따또가는 지원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대인예술시장은 공공의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팀과 예술가협회의와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창작실 공간구성은 문래창작촌이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창작실을 거주와 창작, 커뮤니티 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도심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또따또가는 부산시가 소유주로부터 임대하여 예술가들에게 무상임대한 창작실에 다수의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공간적인 측면에서 문래창작촌보다는 협소하고 용도 또한 정해져 있었다. 또한 문래창작촌은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의 유통공간인

〈표 1〉 물리적 특성과 예술가들의 특성

		문래창작촌	대인예술시장	또따또가
물리적 특성	위치	도심(영등포구 문래동)	도심(중구 대인동)	도심(중구 중앙동)
	형성시기	2000년 이후 (2007년 증가)	2000년 이후 (2010년 증가)	2009년 이후
	규모	반경 500m(소규모)	반경 500m(소규모)	반경 1km(소규모)
	배치	문래역 주변에 집중	대인시장 내 집중	중앙역 50계단 근처 분산 배치
	거리	철공소 공업지역	재래시장	상업지역(인쇄, 소점포중심)
	공공 디자인	· 벽화그리기 · 공공화단설치 및 옥상정원 조성 · 공공 설치미술 설치 · 개성적인 창작실 간판	· 벽화그리기 · 상가간판 미화 · 공공의자 · 공공설치미술 설치	· 벽화그리기 · 또따또가 창작실 간판통일화 · 조각상 설치
	상업시설	· 생활편의시설 부족 · 카페, 식당 등 상업시설 증가 · 상업적 공방, 미술관 증가	· 식당과 카페 증가 · 상업적 공방 증가	· 카페 증가 · 상업적 공방증가
	기타	· 비영리단체, 미술관, 연구소	· 예술벼룩시장 활성화	· 상업적 미술관 증가
창작실 특성	임대료	저가	저가	2년간 무료
	개소	70여 개	40여 개	30개
	이용목적	창작+거주, 창작, 창작+커뮤니티	창작+상업, 창작	창작+교육, 창작, 창작+커뮤니티
	규모	중대	중	소, 중
	공간공유	다목적활용 (전시, 공연, 세미나 등)	다목적 활용(전시, 판매, 세미나, 커뮤니티 등)	순수창작
	거주여부	거주	거주	거주안함
	기타	다목적공간 개조 증가	다목적공간 개조 증가	
예술인 특성	분야	시각, 공연예술이 중심	시각분야 중심	다양한 분야(교육중심)
	인원	200여 명 내외 (레지던스 작가 제외)	60여 명 내외 (레지던스 작가 제외)	300여 명
	학력	대졸이상 주류	대졸이상 주류	대졸이상 주류
	나이	20-30대가 주류	20-50대 다양	다양
	경력	학생, 10년 미만 신진작가	학생, 신진, 중견작가	중견이상
	거주지	서울, 일부 경기도 포함	광주와 전남지역	부산지역
	기타	· 다양한 소모임활동이 활발하 나 전체적인 의사결정모임은 없음 · 문래예술공단 등 다수 모임 운영	· 다양한 소모임활동과 함께 시장내 예술인들을 위한 전체 협의회운영 · 학연으로 네트워크화 · 대인시장문화예술인협의회 “대소쿠 리” 운영	· 다양한 소모임활동은 개별에 술가들이 주도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지원센터가 담당

전시와 공연, 판매공간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인예술시장은 공예품 및 작품판매공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대인예술시장은 문래창작촌과 유사하게 거주와 창작공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창작공간과 전시·공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의 특성을 반영, 창작공간과 판매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근 상가의 외부 판매대를 그대로 연장하여 창작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내부에 별도의 판매공간을 두기도 하였다.

창작촌 물리적 특성은 모두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대인예술시장, 또따또가) 혹은 부도심(문래창작촌)에 위치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 곳 모두 벽화, 간판, 공공미술로 거리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곳은 문래창작촌으로 예술가들이 화단, 벽화, 간판, 옥상정원, 텃밭 등 다양한 거리미관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작촌 전체의 커뮤니티와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구성을 보면 대인예술시장은 「대인시장문화예술인협의회」를 만들어 공공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또따또가는 운영지원센터 프로그램의 결정과정에 예술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리고 문래창작촌은 너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집적하고 있어 분야별(시각, 공연, 기타 등) 모임, 관심주제별 소모임이나 세미나, 축제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소모임, 개별 예술가 파티 등 다양

한 통로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IV. 문래창작촌, 광주 대인예술시장, 부산 또따또가의 창조네트워크 분석

##### 1. 창조네트워크 분석방법

본 연구는 창작촌의 예술가들이 창작과정에서 형성하고 있는 창조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있어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한다. 사회네트워크분석은 행위자 간 연결망을 통해 구조나 연결망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김용학, 2003b). 사회네트워크분석 자료구성은 행위자 간 링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메트릭스로 표현되는데, 행위자가 개인 간, 개인과 조직(클럽, 학교 등), 거시조직 간(도시, 국가 등) 인지에 따라 메트릭스의 의미는 달라진다. 먼저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거시조직과 거시조직과 같이 두 행위자의 차원이 동일한 경우는 One-Mode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는 한 지역사회 내 주민들 간의 연결망이나 친구들 간의 연결망과 같은 구성이다. 이와 반대로 행위자 간 차원이 상이한 경우를 Two-Mode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기업군과 비영리단체군 간의 기부금 연결망으로, 행위자와 집단, 행위자와 이벤트, 행위자와 활동 등을 분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가들이 창조과정에서 교류를 하는 집단네트워크를 분석할 때는 Two-Mode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사회네트워크분석은 밀도<sup>1)</sup>, 집중도<sup>2)</sup>,

1) 네트워크 분석에서 밀도(d)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된다.  $d = \frac{k}{g(g-1)/2}$  여기서 g: 결절점 수, k: 연결선 수

2) 연결정도 집중도(degree centralization)를 측정하게 되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중심성<sup>3)</sup>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네트워크분석의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하였다. 문래창작촌은 2011년 1월, 부산또따또가와 광주대인예술시장은 2011년 8월에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설문을 실시하여 각각 문래창작촌 35부, 대인예술시장 32부, 또따또가 39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문래창작촌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확대 적용한 박세훈 외(2011)의 대인예술시장과 또따또가 설문자료 중 문화예술인들의 창조네트워크 부분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예술가들의 인적사항(나이, 학력, 경력, 거주지, 분야), 창작실 특성(임대료, 이용목적, 규모, 거주여부, 공간공유, 기타), 창작촌에 대한 인식(만족도, 불만사항, 개선사항 등), 교류(교류회수, 교류빈도, 교류목적 등), 창조네트워크(네트워크 빈도, 주제, 결과 등)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창조네트워크는 “최근 1년동안 창조활동인 아이디어에서 작품의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은 주체는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여 도움을 받은 모든 주체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 자료를 구축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주체는 각 연구지역의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해낸 것으로 세 지역에 차이를 보인다.

## 2. 문래창작촌 · 대인예술시장 · 또따또가 창조네트워크 특성

창조네트워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창조네트워크는 예술가들이 창조과정의 첫 단계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제로 작품을 만들고 이를 홍보 및 판매까지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주체를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창조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창조과정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조네트워크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의 전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주체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창조네트워크는 문화예술가들의 창작의 전과정에 초점을 두었고, 창작과정에서 보여지는 유·무형의 도움을 누구에게 받는지의 상호작용으로 국한하였다.

〈그림 1〉은 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조네트워크 중 문화예술가 개인과 도움을 주고 받는 집단간 연결망, 즉 원모드(One-Mode)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으로, 예술가 개인은 무기명으로 표기하고 집단명칭만 표기하였다. 문래창작촌과 또따또가에서 하나의 고립자를 제외하면 문래창작촌, 대인예술시장, 또따또가의 창조네트워크 연결망은 매우 복잡하고 긴밀한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다.

$$C = \frac{\sum_{i=1}^g [C(n^*) - C(n_i)]}{\max \sum_{i=1}^g [C(n^*) - C(n_i)]} = \frac{\sum_{i=1}^g [C(n^*) - C(n_i)]}{[(g-1)(g-2)]}$$

$C(n^*)$  :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결절점의 중심성 값,  $C(n_i)$  : 각 결절점의 연결중심성 값

분모는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결 집중도 값으로, 어떤 한점으로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점들은 연결되지 않은 스타형으로  $(g-1)(g-2)$ 와 같다.

3) 중심성 지수를 산출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C_i(\alpha, \beta) = \sum_{j=1}^N (\alpha + \beta C_j) R_{ij}$$

여기서  $\alpha$ 는 중심성 지수를 표준화하기 위한 상수,  $\beta$ 는 상호작용 정도이며,  $R_{ij}$ 는  $ij$  결절점 간의 유동량을 말한다. 연결망 내에서 타행위의 영향력이 긍정적, 보완적 관계에 있다면  $\beta$ 값은 양의 값을 가지며, 부정적·경쟁적 관계를 갖는다면 음의 값을 부여한다.





집단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집단과 긴밀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Two-Mode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가들의 창조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였다. 첫째, 창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가 모두 연결되어 다양성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각 지역만의 특성을 보여준다(〈표 3〉, 〈표 4〉 참조). 문래창작촌은 내부타분야, 내·외부동일분야, 창작촌축제관련위원회, 문래예술공장, 내부기획자, 철공소, 소규모모임, 외부기획자와의 연결이 상위순위를 보여 네트워크가 다양한 가운데 예술가들과의 연결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따또가는 운영사무국, 내부동일분야, 부산시, 외부동일분야, 내부동일분야 순서를 보이는데 운영사무국과 부산시라는 공공과 예술가들과의 연결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예술시장은 내부동일분야, 내부지원기관, 내부타분야, 외부동일분야, 광주시 순서로 내부지원기관과 광주시와 예술가들과의 연결을 보여주는데, 특이한 점은 내부지원기관의

구성원들이 지역 내 예술가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인예술시장은 예술가들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창조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획득이나 공동작업, 상품판매에 있어 지리적 근접성은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민간주도형인 문래창작촌의 연결순위에서 상위 주체는 내부타분야, 내·외부동일분야, 창작촌축제관련위원회로 공간적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다. 복합형인 대인예술시장은 내부동일분야, 지원기관, 내부타분야이고 정부주도형인 또따또가는 운영사무국, 내부동일분야, 부산시가 상위연결 주체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를 보면 가장 연결이 높은 주체는 내부 행위자임을 알 수 있어 창조네트워크도 지식·혁신네트워크와 같이 근접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문래창작촌과 대인예술시장의 경우는 창작촌 내 철공소와 시장 내에서의 재료, 공구, 상인들의 작업지원, 홍보, 판매 등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지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문래창작촌의 시각과

〈표 3〉 창조네트워크 연결 순위

	문래창작촌	또따또가	대인예술시장
1	내부타분야	운영사무국	내부동일분야
2	외부동일분야	내부동일분야	내부지원기관
3	내부동일분야	부산시	내부타분야
4	창작촌 축제	외부동일분야	외부동일분야
5	문래예술공장	내부타분야	광주시
6	내부전시공연 관련자, 내부기획홍보 관련자, 창작촌철공소	외부타분야	중앙정부
7	소규모모임	부산민간예술단체	지역주민및민간단체, 외부타분야
8	외부전시공연관련자	지역주민및 민간단체	민간기업및독지가
9	외부기획홍보관련자	민간기업및 독지가	광주민간예술단체
10	창작촌NGO	대학	대학
11	서울시, 영등포구축제	전국민간예술단체	전국민간예술단체
12	대학	중앙정부	기타
13	관련협회위원회, 영등포구청	기타	
14	기타		

공연분야는 지역 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또따또가는 창작촌 밖의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현상은 집적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특성과 집적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민간주도형은 예술가들 간 교류가 활발하여 창조과정에서 지역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정부주도형인 또따또가는 부산시 공모로 입주한 작가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부보다는 외부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심성 분석을 통해 창조네트워크의 중심주체를 본 결과, 문래창작촌과 대인예술시장은 창작촌내의 동일분야와 타분야의 예술가들인 반면 또따또가는 운영사무국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 4〉 참조). 이렇게 창조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는 각 지역의 형성과정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민간주도형인 문래창작촌은 중심기관이 부재하므로 예술가들 간의 링크가 강하게 작용하고 정부주도형인 또따또가는 모든 지원과 행사 등이 운영사무국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이하게 복합형인 대인예술시장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이 예술가들의 참여로 그 성격이 변했지만 창조과정에서 차상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문래창작촌과 또따또가의 중간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민간주도형 문래창작촌, 복합형 대인예술시장, 정부주도형 또따또가의 창조네트워크와 장소적 특성을 종합하여 지역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주도형인 문래창작촌은 10여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모여 형성된 곳으로 창작실 구성, 활동(축제, 모임 등) 등을 보았을 때 창조네트워크는 “창작활동”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합형인 대인예술시장도 마찬가지로 10여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저렴한 임대료공간인 도심의 시장에 예술가들이 모여 형성된 곳이나 광주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 성장하면서 “창작활동”과 “시장활동”이 결합된 형태로 예술가들의 창작실이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주도형인 또따또가는 부산시의 도시재생이라는 지

〈표 4〉 창조네트워크 중심성 결과

순위	문래창작촌	대인예술시장	또따또가
1	내부동일분야, 내부타분야, 외부예술가	내부동일분야, 내부타분야	운영사무국
2	창작촌축제위원회	내부지원기관	내부동일분야, 부산시
3	문래예술공장, 창작촌 내 공연전시장, 창작촌내 기획홍보, 창작촌철공소	외부동일분야, 광주시	내부타분야, 외부동일분야
4	소규모모임, 창작촌외부 공연전시장, 창작촌외부기획홍보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외부타분야
5	창작촌NGO	외부타분야, 중앙정부	지역주민및민간단체, 민간기업및독지가, 부산시민간예술단체
6	서울시, 영등포축제관련조직	민간기업 및 독지가	전국민간예술단체, 대학
7	대학, 관련협회및위원회, 영등포구청	광주시민간예술단체, 대학, 전국민간예술단체	중앙정부

원을 계기로 선발에 의해 예술가들이 입주하고 운영사무국이 주관하는 활동, 창작실 구성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유로 부산시가 당초 의도하였던 지역주민(거주민, 관광객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운영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형성과정과 중심주체가 다른 민간주도형의 문래창작촌, 정부주도형인 또따또가, 복합형인 대인예술시장의 장소적 특성과 창조네트워크를 규명한 것으로, 창조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 중 Two-Mode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민간주도형인 문래창작촌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으로 젊은 신진작가들,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형태를 보였다. 공간적 특성으로는 창작실을 복합용도(창작+판매+전시+거주+모임장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물리적 개선을 위해서 간판, 거리미화, 창작실 오픈, 옥상녹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제, 시민과의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화합해 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의 창작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주체들과의 연결망을 조사한 결과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래창작촌은 창작촌 내 다양한 예술가들 중심의 창조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주었고, 내부 타분야 간 연결주체의 다양성, 특정주체로의 중심성도 보여주었다.

정부주도형인 또따또가는 부산시의 정책적 의도로 작가들을 공모하여 창작공간을 무상임대해 주고 있어 공간적 규모면에서 타지역보다 작고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물리적 개선을

위한 시도는 민간주도형, 복합형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사항이었다. 정부주도형의 창조네트워크는 운영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복합형인 광주대인예술시장은 예술가들의 자발적 입주와 문화관광체육부와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을 계기로 형성된 곳이나 민간주도형과 유사한 공간의 복합이용(창작+판매+전시+거주+모임장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물리적 개선 측면에서도 창작실을 중심으로 한 간판, 거리미화, 창작실 오픈뿐만 아니라 시장 내 타업종 가게들의 미화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창조네트워크는 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의 중간형태로 창작촌 내 예술가들과 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성과 지리적 근접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 지역은 쇠퇴하는 대도시 내 특정지역에 문화예술가들이 집적하여 새로운 지역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게 도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향후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민간주도형인 문래창작촌은 창조네트워크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작품창작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운영중인 문래예술공장을 비롯하여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지원사업 및 공공미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더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문래창작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지원관련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영등포

구, 서울시, 문화재단 등)이 문화예술의 소비자 및 지원자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면 독창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복합형인 대인예술시장은 지금까지 실시해온 문전성시사업과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복합성을 잘 살려 시장과 문화예술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술가들이 시장이라는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작과 이를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예술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예 : 문래예술공장의 임대공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인과 예술인,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청의 시설개선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제, 예술활동지원프로그램, 공간개선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과 예술의 융복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칭)대인예술옥션하우스 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공공부문의 역할보다는 관련 단체 · 협회가 주관이 되어 창조성을 발휘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진 무명의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창작, 홍보, 교류, 판매의 연쇄사슬이 완성되어 비엔날레와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함께 광주광역시가 문화예술 도시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주도형인 또따또가는 공공의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이 운영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창조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광객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이다. 부산 도

심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운영중인 세미나, 교육, 행사 등의 빈도를 높여 교류의 강도를 높여서 국외까지 확장한다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류와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재의 창작실의 물리적 변화도 일부 요구될 것이고 다양한 예술분야의 교류를 위한 복합공간,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주도형으로 조성되었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입주예술가들이 입주기간동안 자생력을 키워 인근에 재정착할 수 있는 후속방안으로 간접적인 정책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집적공간을 사례로 도시계획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성과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창작촌의 존속기간이 길지 않아 시간경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공간적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은 점, 창작촌 내외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창작공간과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미나, 2004, “해외리포트 :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사례 : 영국 캐슬베일”, 『국토』 271: 56~83.
- 계기석, 2010,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전략모형의 적용방향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3(4) : 175~194.
- 김 강, 2010, 『삶과 예술의 실험실 SQUART』, 문화과학

- 사: 서울.
- 김연진, 2010, “예술창작촌의 장소형성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사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환 · 권범철, 2008, 『문래창작촌 연구Ⅰ』,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 김윤환 · 권범철, 2010, 『문래창작촌 연구Ⅱ』,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 김용학, 2003a,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서울
- \_\_\_\_\_, 2003b,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서울
- 김인선 · 김영실 · 서정훈 · 최왕돈, 2010, “도시재생을 위한 컬처이코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문래동 특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5): 285~296.
- 김홍주, 2011, “문래창작촌의 장소성과 창조네트워크 특성”, 『국토계획』 46(3): 207~210.
- 김홍주 · 박세훈, 2012, “창작촌의 예술가 창조네트워크 비교: 문래창작촌과 또따또가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회보』 25(1): 181~200.
- 라도삼, 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박세훈 · 김은란 · 박경현 · 정소양,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승애 · 윤준성 · 송관호, 2009,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문래동 예술단지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6): 191~199.
- 박은실, 2005,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17: 11~37.
- 백선훤 · 라도삼, 2008,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변항기 · 조종수, 2006, “구도심재생을 고려한 복합문화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6(1): 85~88.
- 석혜준 · 이만형, 2006, “문화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정기학술대회』, 177~184.
- 오동훈, 2010,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 사례 비교연구”, 『도시행정학보』, 23(1): 175~197.
- 오민근 · 서진영, 2010, 『서울, 문화를 품다』, 생각의 나무: 서울
- 오희택, 2011, “문래동의 장소성 변화와 문화매개 도시재생 가능성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이명진, 2010, “공공 미술을 통한 공공 공간의 확장”, 『인문학논총』, 15(3): 97~118.
- 이순성, 2010,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한 · 중비교: 서울 문래동예술촌과 북경798대산자예술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석사학위논문.
- 정철현 · 김종업, 2011, “창조도시구현을 위한 문화거리 활용방안: 부산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79~390.
- 정희선 · 김희순, 2011,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과 창조성의 배양: 서울시의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 45(2): 279~293.
- Becker, H., 1982, *Art Worl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nett, T., 1998, “The Multiplication of Culture’s Utility”, *Critical Inquiry*, 21: 861~889.
- Bianchini, F. and Parkinson, M., 1993,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13.
- Booth, P. and Boyle, R., 1993, “See Glasgow See Culture”, in F. Bianchini and M. Parkinson (Eds),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21~47,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Evans, G., 2005,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1~25.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 Garcia, B., 2005, “Urban Regeneration, Arts Programming and Major Ev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0(1): 103~118.
- Loftman, P. and Nevin, B., 1998, “Pro-Growth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Civic Promotion and Local Needs in Britain’s Second City, 1981~1996”, in Hubbard, P. and Hall, P. H. (Eds), *The Entrepreneurial City*, 129~148,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Matarasso, F., 1996, “Defining Values: Evaluating Arts Programmes,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Working Paper 1, Comedia, Stroud.
- Matarasso, F., 1997,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Stroud: Comedia.
- Miles, S. and Paddison, R., 2005, “Introduction: the Rise and Rise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 Urban Studies*, 42(5/6): 833~839.
- Newman, A. and McLean, F., 2002, "Architectures of Inclusion: Museums, Galleries and Inclusive Communities, in R. Sandell(Ed.), *Museums, Society, Inequality*, London: Routledge.
- Newman, A. and McLean, F., 2004, "Presumption, Policy and Practice: the Use of Museums and Galleries as Agents of Social Inclusion in Great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0(2): 167~180.
- Palmer, R., 2004, *European Capitals/Cities of Culture: Study on the European Cities and Capitals of Culture and the European Cultural Months (1995~2004), Part 1 and II*, Palmer/Rae Associate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Scott, A. J., 2006, *Social Economy of the Metropolis: Cognitive-Cultural Capitalism and the Global Resurgence of C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ifert, S., Stern, J. M., and Zaman, M., 2005, "Artists and Their Social Networks, Metropolitan Philadelphia, 2004", Dynamics of Culture Working Paper #200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how, P., 2003, *What is art got to do with it? Briefing Paper on the Role of the Arts in Neighbourhood Renewal*, London: Arts Council of England.
- Stern, J. M., and Seifert, S., 2007, *Culture and Urban Revitalization: A Harvest Docum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Williams, D., 1996, *Creating Social Capital: A Study of the Long-term Benefits from Community Based Arts Funding*, Community Arts Network of South Australia/Australia Council of the Arts.
- Zukin, S., 1995, *The Cultures of Cities*, Cambridge MA: Blackwell.

원 고 접 수 일 : 2013년 1월 25일  
 1차심사완료일 : 2013년 2월 28일  
 2차심사완료일 : 2013년 5월 14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3년 7월 9일